

주일 교중미사 후 전 교우 천교의 인사 나누기



천주교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은 4월15일(주일) 본당 이계철(리파엘) 주임신부님께서 ‘오늘부터 주일 교중 미사 후 “친교 인사 나누기”로 본당 공동체가 화합과 일치”를 이루자’고 하셨다. 주임신부님께서 ‘내가 먼저 인사를 나누면 상대방도 나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며 서로의 관심 속에 교우 형제자매애가 돈독해지면 전 시흥4동 신자가 신명나는 신앙생활이 될 것이다. 오늘 1구역부터 시작하여 각 구역 순서대로 실행하겠습니다.’ 말씀하시고 몸소 교중미사 파견 강복하신 후 제의를 벗고 1구역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성당 문 앞에서 미사에 참여를 한 교우들과 인사와 담소를 나누었다.

돼지 제육볶음 교우들 입맛 맞추기 진지한 시식 관능(官能) 평가 하다

본당은 4월15일(주일) 구역 중식판매를 7구역에서 돼지 제육볶음밥을 만들어 한상에 6,000원 집에 가서 전자 렌지 살짝만 데어서 드실 수 있는 포장도 6,000원에 판매를 하였다.

여성 7구역장 신희순(마리아)외 6명의 자매님들은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토요일부터 열같이 결절이 김치 및 양념과 반찬을 만들었다.

음식 맛과 간을 맞추느라 진지하게 관능(官能) 평가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하였다.

특히 4월 사목회의가 있어 주임신부님과 사목위원들은 구역에서 조리한 중식을 한 후 위원회를 가졌다.



“며느리 방귀 복 방귀” 연출 해 웃음 전하는 노익장에 박수 보내



행복 시니어 아카데미는 4월18일(수) 학생과 봉사자 60여명 참석한 가운데 교육관 지하 그리스도왕 홀에서 인형극 “며느리 방귀는 복 방귀”를 황영이(금빛 노을 인형극단)단장 외 9명은 익살스러운 유머와 인형배우들의 멋진 연출에 관람하는 학생들은 재미가 있어 공연 시간이 너무 짧았다고 하였다.

금빛 노을 인형극단은 연령대가 68세부터 70대 후반인 시니어 단원들로 구성되어 금천구 시.

니어 단체나 데이케어를 방문하여 익살스러운 웃음을 봉사하는 인생의 2막을 즐기고 있다.

이번 공연한 “며느리 방귀 복 방귀” 모든 소품은 단원들은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각자가 만들고 창작도 하였다.

